



# 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 1.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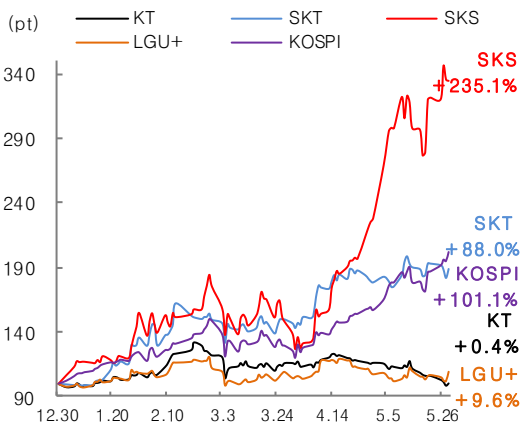
기업	25/12/30	05/22	05/29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12MF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53,500	102,800	100,600	▲47,100	▲88.0%	▼2,200	▼2.1%	3,320	3.3	
SK스퀘어 (402340)	368,000	1,185,000	1,233,000	▲865,000	▲235.1%	▲48,000	▲4.1%			
KT (030200)	52,600	55,800	52,800	▲200	▲0.4%	▼3,000	▼5.4%	2,500	4.7	
LGU+ (032640)	14,720	15,760	16,130	▲1,410	▲9.6%	▲370	▲2.3%	700	4.3	
KOSPI	4,214.2	7,847.7	8,476.2	▲4,262.0	▲101.1%	▲628.4	▲8.0%			

###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언제나 희망은 있다.**
- 통신 주간 -2.1%, KOSPI +8.0%. YTD 통신 +34.6%, 지수 +101.1%. 지수 대비로는 이번 주에도 언더퍼폼 했지만, 금요일 주가는 긍정적인 모습. 금요일 통신 +3.62%, 지수 +3.55%
- 오랜만에 주도주 이외의 산업이 반등하는 가운데 통신도 지수를 소폭 아웃퍼폼. 순환매 장세 형성 시 고배당 매력에 있는 통신도 상승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있는 상승
- 금요일 LGU+ +7%는 LG 그룹이 AI 시대에 Physical AI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LG 그룹주 동반 상승 효과. 통신도 AI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때문에, BM만 조금 더 구체화되면 고배당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주도주 위치에 올라설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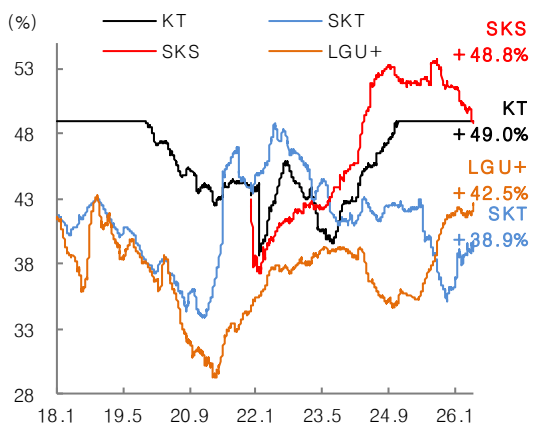
## 2. 주가 차트

###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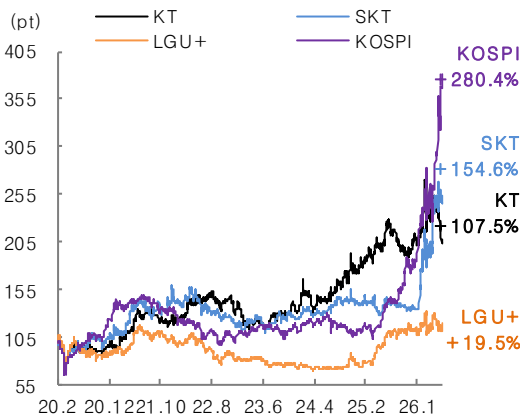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외인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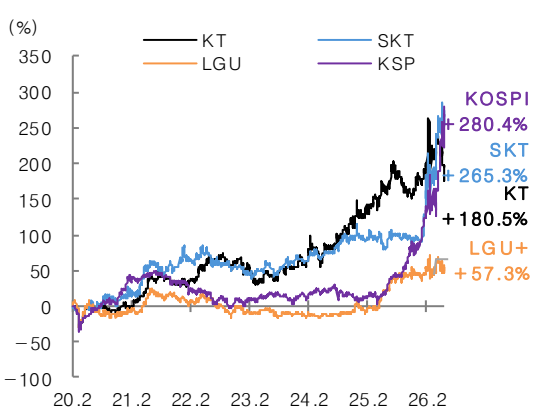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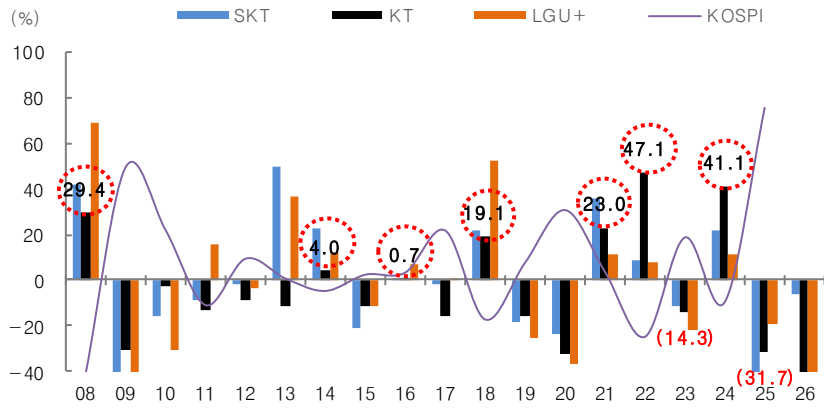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배당 재투자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88.0%(-6.5%), KT +0.4%(-50.1%), LGU+ +9.6%(-45.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SKT	KT	LGU+	KOSPI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9	(11.7)	(9.4)	(19.5)	7.7	(18.0)	(15.9)	(25.3)
20	0.0	(11.1)	(17.3)	30.8	(23.5)	(32.0)	(36.7)
21	41.0	27.5	15.7	3.6	36.1	23.0	11.7
22	(18.1)	10.5	(18.8)	(24.9)	9.0	47.1	8.2
23	5.7	1.8	(7.4)	18.7	(11.0)	(14.3)	(22.0)
24	10.2	27.5	1.0	(9.6)	21.9	41.1	11.7
25	(3.1)	20.0	42.5	75.6	(44.8)	(31.7)	(18.9)
26	88.0	0.4	9.6	101.1	(6.5)	(50.1)	(45.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3. 주간 코멘트

LGU+ 임단협, 웨어러블 회선 200만 돌파, SKT 사내 AI에이전트, LGU+ 요금제 통합, 공통지원금 확대

**LGU+**

1. 삼성전자 중심 성과급 논란 확산 속 LGU+ 노사 갈등 본격화 국면 진입. 성과급 지급 기준과 임금 체계 제도화 요구 등 통신업계 보상 구조 논쟁 확대
2. LGU+ 공동교섭단은 4차 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제도 노사 합의 기반 운영 요구 제시. PI·PS 평균임금 산입과 임금체계 반영 요구 포함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
3. 사측은 성과급 제도화와 평균임금 산입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 유지. 총액 기준 3.0% 임금 인상안 제시하며 기존 보상 체계 유지

**LGU+ 임단협**

4. 노조는 평가등급별 제외 시 실질 기본급 인상 폭이 0.4% 수준이라는 점 집착 비판. 성과 기반 보상 확대와 안정적 임금 반영 체계 요구 중심 내부 결속 강화
5. 통신업계는 제조업 중심 성과급 연동 논쟁이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되는 양상에 주목. 삼성전자·현대차 사례 이후 통신업계까지 수익 연동형 보상 요구 확산
6. 지난해 LGU+ 임단협은 정률 1.3% 인상과 정액 19만원 지급 중심 제한적 합의 유지안녕. 올해는 성과급 제도 투명성과 평균임금 반영 문제 결합 속 장기 교섭 가능성 부상

**중립적**

- 회사의 성과가 임직원들의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정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처럼 제조업 기반이 아닌 경우의 성과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산업**

1. 국내 웨어러블 기기 회선 수 사상 최초 200만개 돌파와 함께 세컨드 디바이스 시장 확대 국면. 스마트폰 시장 포화 흐름 속 통신업계 신규 가입자 확보와 라인 전략 핵심 수단 부상
2. 과기부 통계 기준 올해 1분기 웨어러블 가입 회선 수 202만개 기록. 22년 100만 회선 돌파 이후 약 4년 만에 두 배 성장
3. 스마트 워치 셀룰러 모델 중심 독립 통신 기능 수요 확대 영향. 갤럭시 워치, 애플 워치 기능 고도화와 헬스 러닝 기반 사용 증가 영향
4. 카운터포인트리서치 기준 글로벌 스마트 워치 출하량 증가율 4%, 셀룰러 모델 증가율 6%, 셀룰러 채택률 33% 돌파하며 통신 회선 확대 흐름
5. 이통 3사는 고가 5G 요금제 기반 스마트 기기 회선 추가 옵션 제공 중심 가입자 유지 전략 강화. 별도 회선 추가보다 고가 요금제 유지 유도가 가능한 ARPU 방어형 상품 구조 특징
6. 웨어러블 매출 비중은 전체 이동통신 매출 대비 0.3% 수준으로 아직 제한적 기여 단계. 다만 헬스케어·시니어 모니터링·보험 연계 서비스 확대와 5G 레드캡 확산 속 성장 가능성 부각

**긍정적**

- 통신의 궁극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Dumb Pipe. 유무선 다양한 디바이스가 N/W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통신사의 수익
- N/W 진화 측면에서는 5G에 이어서 6G 상용화, 산업 측면에서는 AI 산업 성장에 유무선 트래픽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

**SKT**

1. SKT가 구성원 업무 패턴을 학습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사내 AI 에이전트 도입 본격화. 글로벌 기업 중심 기업형 AI 에이전트 경쟁 확산 흐름 속 전사 AX 체계 구축 전략 가속
2. '에이닷비즈 코워크'는 업무 요청 분석 후 실행 계획 수립과 코드 작성·검증까지 수행하는 자율형 구조. 계약서 검토 기준 반복 학습과 규칙서 비교표 생성 등 실무 자동화 중심 활용 사례 부각
3. 기존 질의응답형 사내 AI와 달리 구성원 업무 루틴 자체를 학습·재현하는 방식 중심 구조 전환 시도. 개발 지식 없이도 업무 자동화 구현 가능 환경 제공하며 실무 생산성 향상 중심 전략 강화
4. 코워크는 아웃룩·팀즈 등 협업 도구 연동 기반 문서 처리와 정보 추출 기능 확대 방향 추진. 향후 연동 범위 확대와 내부 검토 체계 강화 통해 조직 단위 AI 활용 범용성 확대 전망
5. SKT는 AX 관리 플랫폼 AXMS 1.5 버전 업데이트 통해 전사 AI 전환 활동 통합 관리 구조 구축. AX 과제 등록·성과 공유·AI 도구 추천·교육 연계 기능 결합하며 내부 혁신 생태계 조성
6. 사내 해커톤과 AI 에이전트·AX 플랫폼을 연결해 구성원 주도 AI 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 목표 부상. 단순 생성형 AI 활용 단계를 넘어 업무 방식 자체를 AI에 학습시키는 조직 전환 모델 실험

**긍정적**

- AI 솔루션 도입 초기에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 위주로 활용되었으나, 점점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내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중
- AI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일수록 자체적인 AI 활용도가 높아져야 할 것

**LGU+**

1. LGU+가 5G-LTE 구분과 복잡한 결합 구조를 축소한 '심플리 2.0' 전략 공개. 기존 53종 요금제를 데이터플랜·플러스플랜 중심 18종으로 재편하며 이용자 선택 구조 간소화
2. 기존 세대별 통신 기술 구분 대신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 중심 선택 체계로 전환.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400Kbps 이상 속도로 지속 이용 가능한 QoS 전면 적용
3. 저가 요금제에서도 추가 과금 없는 데이터 지속 이용 가능 환경 마련하며 통신 기본권 강화. 상위 요금제는 1Mbps·3Mbps·5Mbps 속도 차등 제공 구조 적용하며 데이터 체감 품질 경쟁 확대
4. 연령대별 전용 요금제 직접 선택 구조 폐지 이후 자동 혜택 적용으로 이용 절차 간소화. 키즈·청소년·시니어 혜택 자동 전환 체계 도입하며 가입 유지와 장기 고객 편의성 강화
5. 모바일과 인터넷 결합 상품을 하나로 묶은 '올인원' 상품 출시 통해 유무선 가입 구조 단일화 추진. 기존 개별 가입과 결합 할인 신청 절차를 제거하며 고가 요금제 고객 대상 인터넷 무상 제공 전략 병행
6. LGU+는 100개국 대상 5G 로밍 확대와 함께 통신 전반 고객 체감 혁신 강화 기조 지속 강조. 통신 3사 통합요금제 경쟁 본격화 국면 속 요금 단순화와 데이터 중심 상품 재편 흐름 확산 전망

**긍정적**

- LTE와 5G 통합 요금제 도입을 통신비 인하로 볼 필요는 없을 것. 소비자들의 요구도 있지만, 5G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굳이 LTE와 5G의 요금을 구분해서 운용할 필요는 없다는 통신사 내부의 판단도 요금제 통합의 배경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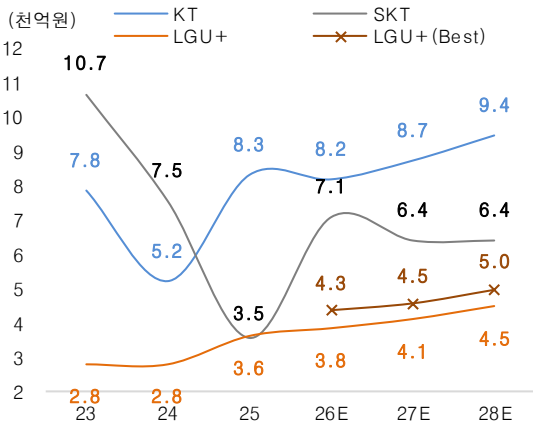
1. 갤럭시 S26 시리즈가 출시 두 달 만에 사실상 무상 구매 가능 수준으로 지원금 경쟁 국면 진입.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며 이동통신 3사 가입자 확보 경쟁에 급격한 과열 흐름
2. 이통 3사는 공통지원금을 출시 초기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며 공격적 마케팅 전략 전개. SKT 최대 58만원·KT 최대 60만원·LGU+ 최대 70만원 수준 지원
3. 유통 대리점 주가지원금과 카드 실적 혜택 결합 이후 일부 판매점 중심 현금 캐시백 지급 사례까지 등장. 기본형 모델뿐 아니라 울트라 모델까지 실질 구매 가격 전 현상 나타나며 '공짜폰' 경쟁 본격화
4. 올해 1분기 이통 3사 마케팅 비용은 총 2조 423억원 규모 기록하며 전년 대비 9.4% 증가. 가입자 이탈 방어와 고가 요금제 유지 목적 중심 지원금 상향 경쟁 지속 확대 예상
5. KT는 아이폰 17E 지원금까지 경쟁사 대비 수배 수준으로 확대하며 공격적 유지 전략 강화. 해킹 사고 이후 위약금 환급 정책과 가입자 이탈 영향 속 점유율 회복 목적 마케팅 집중
6. 삼성전자 역시 교체 주기 장기화와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둔화 흐름 속 판매 확대 전략 병행. 제조사 보조금 확대와 통신사 지원금 경쟁 결합 구조 속 국내 단말 유통시장 과열 우려 확대

**중립적**

- 25년 2분기부터 지난 26년 1분기까지는 통신 3사의 해킹 사태에 따라 가입자 유출입 규모 확대
- 갤럭시 S26의 경우 단통법 폐지 후 처음으로 출시된 플래그십 모델이어서, 지원금이 조금 더 확대된 경향은 있음
- 다만, 해킹에 따른 일시적인 경쟁 강화 국면과 일부 유통점에서 등장하는 공짜폰이 시장의 전체 모습을 반영한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 일시적인 과열 이후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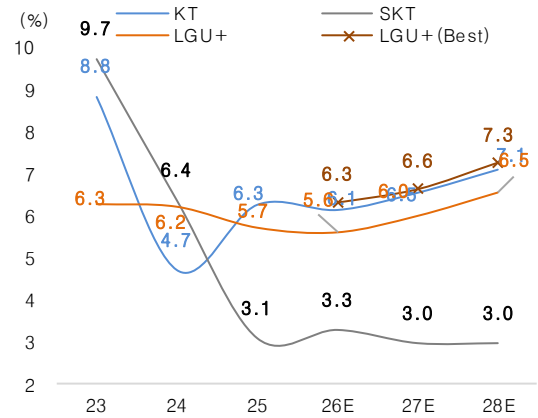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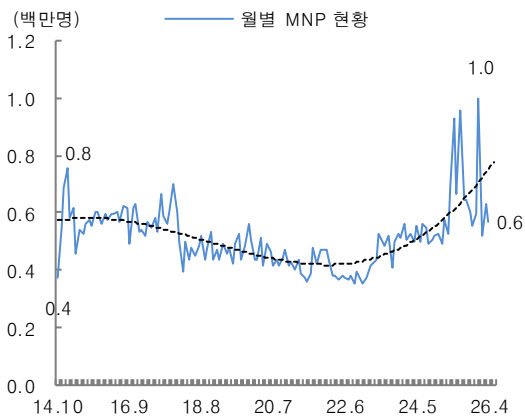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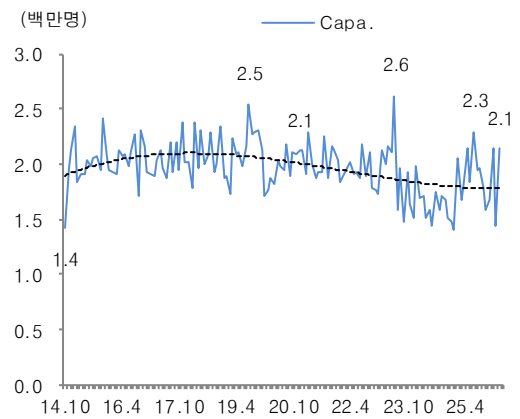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6.4월) 567천명, -66천명 mom. 25년 평균 656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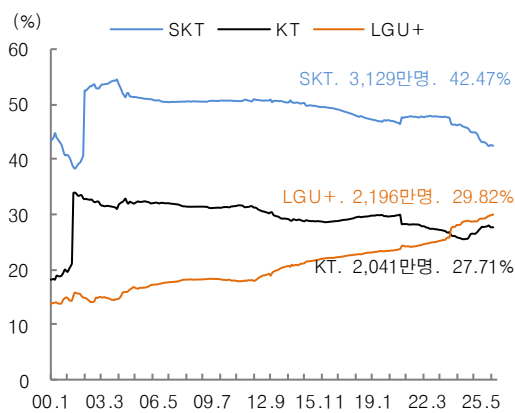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번이 + 기변) 214만명(26.3월). 24년 평균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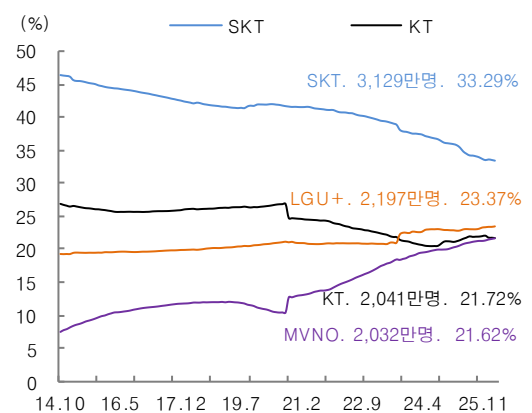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3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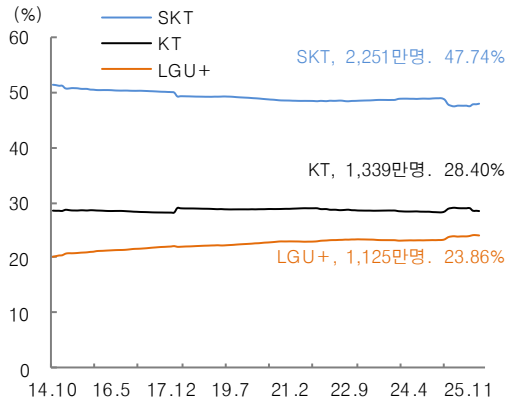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3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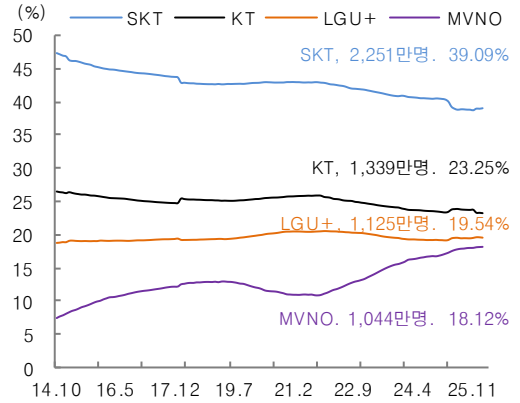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3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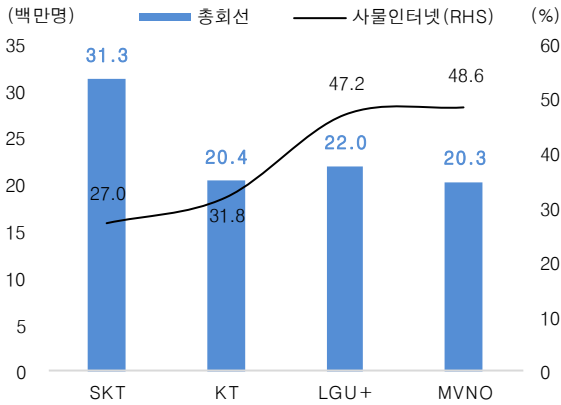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3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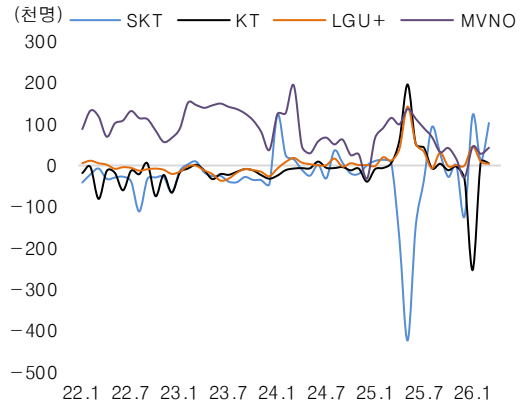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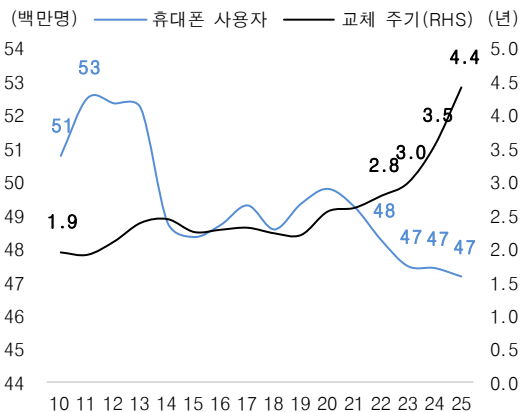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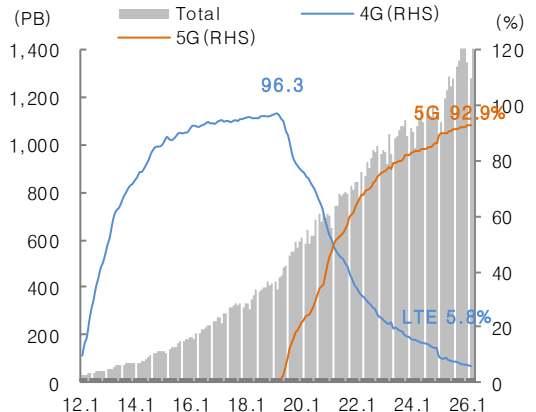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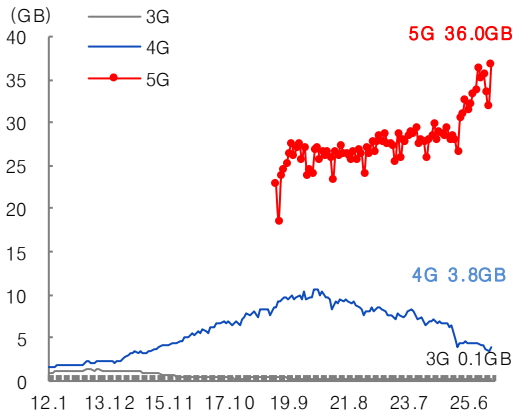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2.9%(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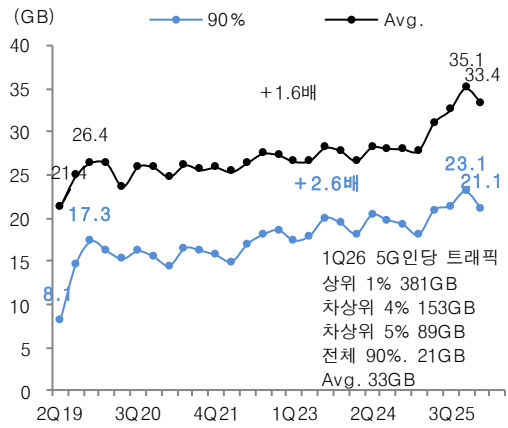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6.0GB(26.3월), +4.0G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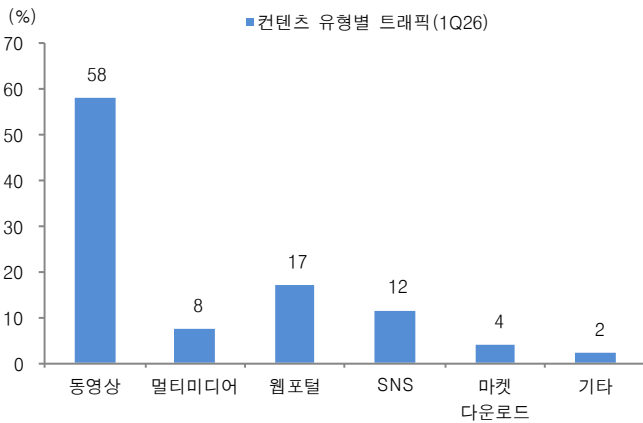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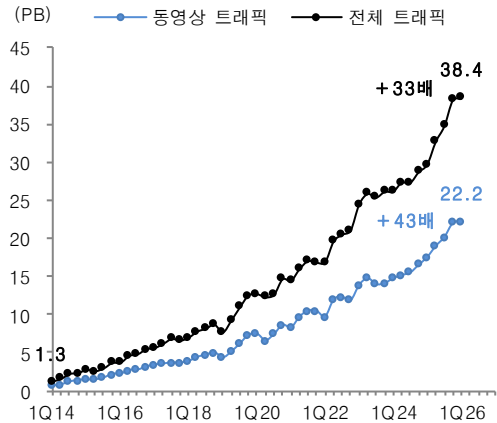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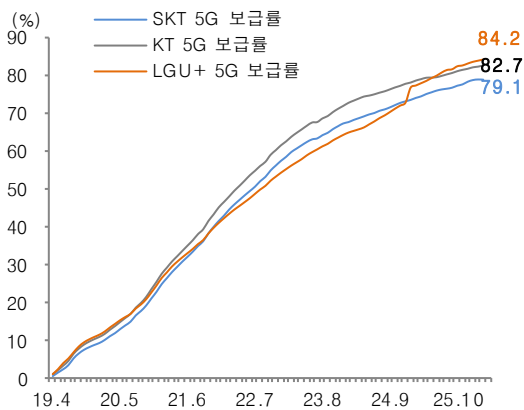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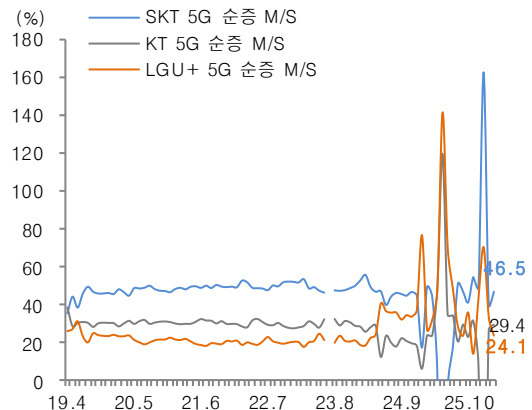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1.3%(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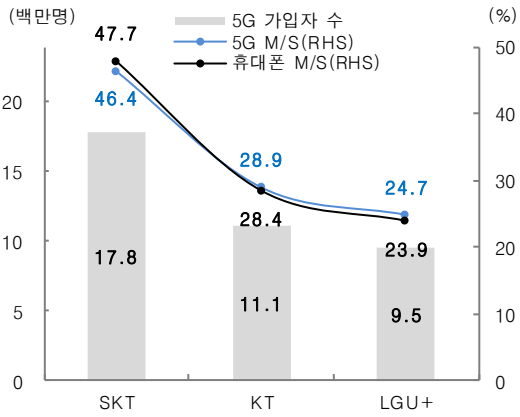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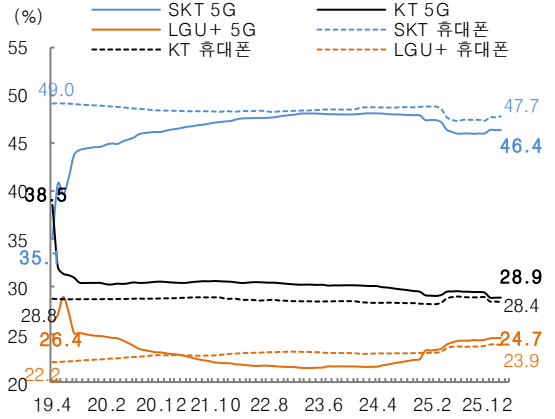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3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3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희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